

수십만년 인류 문명의 지식창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박물관이 살아있다

권기문 지음

‘인류의 지식을 늘리고 확산하는 기관’.

얼핏 국가 연구원이나 문화교육 관련 기관을 말하는 것 같다. 이곳은 이렇게도 불린다. ‘지식이 멈추지 않는 곳 지식의 보고’. 바로 세계 최대 박물관 그룹 스미스소니언이다. 이곳에는 미국 국립박물관 19곳, 국립연구소 14곳 그리고 국립동물원이 있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의 전시가 유명하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전 세계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스미스소니언의 방대한 전시 컬렉션을 담은 이색적인 책이다.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회장을 역임한 권기문 ‘과학관과 문화’ 대표가 저자로, 그동안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를 펴냈다.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태형 중주고구려전문과학관 관장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스미스소니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수십만 년 지속되어 온 인류 문명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며, 그 문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축구장 18개를 합친 엄청난 규모와 방대한 전시물을 자랑한다. 연간 방문객이 3000만 명이며 그 가운데 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이 두 번째다. 공학박사이자 스미스소니언 방문 연구원이었던 저자는 해박한 지식과 이해도를 토대로 자연사박물관을 설명한다.

이곳은 제임스 스미스슨(1765-1829)이라는 영국 과학자 유산으로 세워졌다. 파리에서 영국인 부모의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스미스슨은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어머니는 영국 왕 헨리 7세의 직계 후손인 왕녀 출신 미망인이었다. 그러나 스미스슨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사후 조카 헨리 제임스 디킨슨에게 돌아갔다. 당시 스미스슨이 작성한 유서는 ‘내 유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고

상속자가 없으면 그 유산을 금괴 형태로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얼마 후 조카마저 죽었는데 그 역시도 결혼을 하지 않아 상속자가 없었다. 당시 영국에 주재하던 미국 외교관 에른 베일은 미국 정부에 알렸고 결국 스미스소니언 기관 설립에 쓰여진다.

책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앞서 언급한 스미스소니언 역사, 다시 말해 박물관 탄생 이야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2장 포유류 전시실에는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로부터 아프리카 포유동물인 표범, 사바나 지역에 거주하는 조원의 신사 기린에 관한 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포유동물, 흰 오리사과 사막의 여우 이야기도 흥미롭다.

3장 해양 전시실은 고래보다 멀리 이동하는 장수 거북과 위기의 바다거북의 생태를 비롯해 바다의 괴물 대왕오징어, 바다의 꽃 산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전시실은 4장이다. 가장 먼저 발견된 인류 화석 네안데르탈인과 가장 유명한 인류 조상의 화석인 루시에 관한 정보도 만날 수 있다. 5장은 보석, 광물 등을 매개로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호프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이색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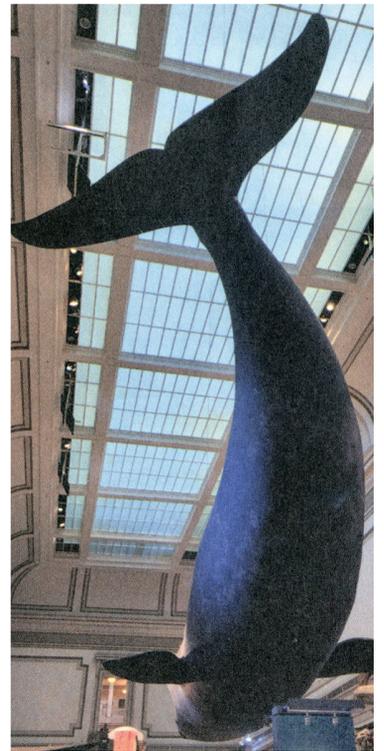
마지막 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 닥 타임 화석 전시실과 본 적 없지만 과거를 보여주는 과학예술 팔레오 아트, 공룡들의 족보 등을 만날 수 있다.

〈리스크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기 인류의 하닌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아래에서 올려다 본 참고래 피닉스 모습.

찾았만 보아도 마음은 이미 꽃이다

강금미 지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지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다. 용기를 내어 차에 젖은 일상의 여백에 설익은 시어들을 조심스럽게 담아낸다.”

차를 모티브로 시집을 펴낸 강금미 시인. 모두 차를 중심으로 창작된 50여 편의 시집에선 맑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강 시인이 최근 발간한 ‘찾았만 보아도 마음은 이미 꽃이다’(상상인)는 다양한 차들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시인은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차 한잔 정성으로 내놓으며 정갈한 다시(茶詩)를 쓰는 다인(茶人)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다.

작품 가운데에는 ‘호박차’, ‘홍차’, ‘녹차’, ‘매화꽃차’ 등 다양한 차들이 등장한다.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그 향이 느껴지는 듯 하다.

“저 퍼낸 잎/ 흔들려도 꺾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국// 찾잔 아래로 떨어 내는/ 눈물 같은 방울들// 망울진 잎눈 터뜨리는 날까지/ 생을 농축시켰던 연둣빛 차물/ 민낯의 진실함일까// 하늘을 받쳐 들고/ 성인들의 고서를 낭독하는 듯하다// 이슬처럼 맑아진 차나무 골에서/ 식어가는 심장에 청아한 온기를 담는다...”

위 시 ‘녹차’는 녹차에 화자의 심상을 담은 작품이다. 찾았의 흔적부터 한잔의 차로 우려지는 녹차의 ‘과정’이 정갈한 언어로 그려져 있다.

화자는 “생을 농축시켰던 연둣빛 차물”이라는 표현으로 녹차의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한편 강 시인은 ‘문학춘추’로 등단했으며 원광대 대학원 예문화와 다도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찾았만 보아도 마음의 향기’와 ‘차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존감증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등 논문이 있다.

〈상상인 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벚속 아기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백창우 지음·한태희 그림

“아기는 이 세상 무엇보다 예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아기 고양이, 아기 토끼, 아기 나무, 아기 별, 아기 바람, 아기 햇살, 아기 민들레, 아기 손톱, 아기 양말... 이렇게 ‘아기’만 앞에 붙여도 모두 예쁜 이름이 되는 걸 봐요. 이런 아기에게 어떤 시와 노래를 들려줘야 할까요.”

김광석의 ‘부치지 않은 편지’, 김원중의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지’, 안치환의 ‘겨울새’ 등 수많은 가요와 동요를 탄생시킨 작곡가이자 시인 백창우가 아기와 엄마를 위한 태교음악 책 ‘벚속 아기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을 펴냈다.

백창우, 김미혜, 도종환, 정세기, 정호승 등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에 백창우가 곡을 붙이고 자연 악기와 새소리, 빗소리 등으로 연주한 특별한 음악이다.

‘벚속 아기와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은 책과 음악 CD로 구성돼 있다. 책은 우리 말의 맛과 매력이 살아있는 시에 한태희 그림책 작가의 정겨운 그림을 곁들였다. 시 옆에는 벚속 아기와 엄마에게 전하는 편지글과 함께 음악에 담긴 아기 이야기를 실었다.

노래는 시인들의 시에 백창우가 곡을 붙여 만들고 방기순, 윤선애, 이슬, 정유경, 안성화(글귀원성), 굴림쇠아이들이 불렀다. 제작가 다른 낱말을 가진 악기를 실제 연주하고 새소리나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 벚속 아기와 엄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고급 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다.

책머리 뒷붙이는 말에도 아기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음악을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 아기에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음악 사이에 아기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조그맣게 들려주세요.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가끔 여기 있는 음악을 들려줘 보세요. 아파 금방 알아채고 반가워할 겁니다.”

〈한울림 2만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

주형일 지음

“광주의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 예술계의 분열과 창작 활동의 침체로 광주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한 줄짜리 리드문은 기자가 쓴 것이 아니다. 챗GPT에게 가짜뉴스를 써보라는 명령 하에 만들어진 낱조의 문장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일단 읽게 되고, 그중 일부는 믿게 될지도 모른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분별하기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주형일 저자가 발간한 ‘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는 위기에 봉착한 디지털 원주민들이 진실을 헤쳐 나갈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제시한다. ‘디지털 문해력’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책의 표현에 따르면 스스로 ‘미디어 탐정’이 되어 격랑하는 거짓 정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

저자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프랑스 파리5대학, 1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은 공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 장에서 언론이 취해야 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분석하는 한편 ‘탈진실 시대’의 생존 전략까지도 강구한다. 그러면서 예시로 드는 영화 ‘트루먼 쇼’, ‘인디펜던스 데이’ 등은 가공된 정보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법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한편 저자는 미디어 텍스트를 읽는 방법으로 ‘인코딩’과 ‘디코딩’ 개념을 언급한다. 매스미디어는 습득한(인코딩)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출하기에 대중이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디코딩’(해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딩 기계처럼 우리가 정보를 여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슬픈 현실처럼 다가온다.

〈한국문화사 1만8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